

가야



Let's Explore the Gaya Confederacy!

아래의 전시품을 찾아 관찰해 보고,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그려보세요. (1층 107 가야)

Please find the objects displayed in the Gaya Confederacy Gallery (1F, Gallery 107) and fill in the circle based on your observ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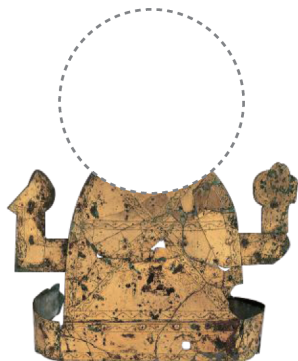


고리자루칼(7번)
Swords with Ring Pommel(7)



Q. 지붕 위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What type of animal do you see on the roof?



가야 전시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전시품을 쓰거나 그려보세요.

Please write or draw your favorite object from the Gaya Confederacy Gallery.

※ 전시 교체나 수리 등으로 전시되어 있지 않은 전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학습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설지

Answers



덩이쇠
Iron Ingots

덩이쇠는 철의 제련과 정련과정을 마친 뒤 2차 가공이 쉽도록 규격화된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간단한 단야 공정을 거쳐서 다른 용도의 철기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화폐로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리자루칼
Swords with Ring Pommel

가야의 철제무기는 신라·백제와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였습니다. 이 중 왕릉급 무덤에서 출토되는 용이나 봉황으로 손잡이 끝의 고리를 꾸민 고리자루칼은 지배자의 신분과 연맹체 간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집모양 토기
House-shaped Potteries

집을 본떠 만든 이 토기는 높은 사다리와 곡식을 훔치러 가는 쥐의 묘사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이거나 창고기능을 겸하였던 살림집으로 보입니다. 쥐에 의한 피해가 무척 많았을 시대에 오히려 쥐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우리 조상들의 여유가 돋보입니다.



그릇받침
Vessel Stand

그릇받침은 가야의 제사토기 중 대표적인 것으로, 특히 대가야 양식 그릇받침은 원통 모양의 몸에 용 또는 뱀 모양의 장식띠를 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판갑옷(부산 동래 복천동)
Plate Amror

가야의 철갑옷은 대략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등장하며, 가야에서 갑옷은 방어구이자 지배 권력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잦았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며, 처음에는 지배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철갑옷은 당시 가야의 국력과 발달된 제철기술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방울
Horse Bells



말갖춤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의 말을 부리기 위해 사용한 각종 장구(裝具)로, 마구(馬具)라고도 부릅니다. 마구에는 말을 제어하는 장구, 말 탄 사람을 고정시켜 주는 장구, 말을 장식하는 장구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말방울은 말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벽사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장품 3D보기
3차원으로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금동관
Gilt-bronze Crown

이 금동관은 가라국(대가야)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사회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관테의 중앙에 광배(光背)모양의 장식을 세운 것은 가라국 관의 특징입니다.